

한국은 개인주의적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가? 가족 구성, 대중가요 가사, 아기 이름 속 개인주의 변화 추이

최혜원[†]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한국은 지난 80년간 식민지, 전쟁, 분단, 산업화, 민주화 등을 거치며 큰 변화를 경험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개인주의가 어떻게 변모해 왔는지를 관찰하였다. 이를 위해 개인주의를 반영하는 지표로 널리 활용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이혼율,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 1인 가구 비율, 독거 노인 비율, 3세대 이상 가구 대비 1세대 가구 비)과 문화적 산물(대중가요 가사 속 1인칭 대명사 사용 비율, 아기 이름의 독특성)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시간이 흐를수록 이혼율, 1인 가구 비율, 독거 노인 비율, 3세대 이상 가구 대비 1세대 가구 비, 대중가요 가사 속 1인칭 단수 대명사 사용 비율은 늘고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줄어들었다. 그러나 아기 이름의 독특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오히려 감소하고, 대중가요 가사 속 1인칭 복수 대명사의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동이 없어, 한국의 개인주의의 변화 양상이 복합적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개인주의 변화 추이를 자기보고식 응답 외에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장기간에 걸쳐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문화, 문화 변동, 개인주의, 집단주의, 문화적 산물

†교신저자: 최혜원,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Tel: 02-961-0652, E-mail: hyewonchoi@khu.ac.kr



© 2023, Korean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한국은 점차 더 개인주의적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가? 일반 대중들은 현재 한국 사회에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팽배해 있다고 인식하는 듯하다. 예를 들어, 2016년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한국인의 의식 구조를 가장 잘 표현하는 가치관”을 묻는 질문에 개인주의(22.2%)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국민일보, 2016). 경쟁(16.7%), 부(14.2%), 성공(11.9%), 행복(11.7%)이 뒤를 이었다. 공동체 의식(8.9%)은 하위권을 기록했다. 이는 한국인들이 지금의 한국 사회를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더 중시하는 사회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학계에서 연구자들은 한국 사회가 점차 개인주의화되고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첫 번째 한계점은 연구들 사이에 결과가 혼재된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즉, 어떤 연구들은 한국 사회가 점차 개인주의화 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만, 다른 연구들은 한국 사회에서 개인주의적 가치관보다는 집단주의적 가치관이 여전히 우세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한계점은 대부분의 연구들이 응답자들에게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적 가치관을 묻는 문항에 응답하게 하는 자기보고식 설문을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최상진, 조운동, 박정열(2001)과 이인영과 박혜경(2020)은 한국의 대중가요의 가사를 분석하여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가치관의 변화를 추적하였다. 이처럼 자기보고식 설문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한국의 개인주의화를 검증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기보고식 설문이 아닌 한국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문화적 산물에서 나타나는 개인주의의 변화 추이를 통해 한국 사회가 점차 개인주의화되고 있는지를 탐색적으로 알아보는 것이었다.

문화, 개인주의, 집단주의

문화는 손쉽게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Kroeber와 Kluckhohn(1952)은 문화의 개념을 검토

하는 과정에서 문화에 관한 160개 이상의 상이한 정의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 이후로도 연구자들은 문화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지만(예: Bruner, 1990; D’Andrade, 1984; Hofstede, 2001; Shweder, 1991; Triandis, 1972), 대부분은 한 사회에 축적된 지식과 관행을 공통적으로 강조한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화를 동시대 사회의 개인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여러 세대에 걸쳐 전달되는 가치관, 규범, 행동 등의 집합체로 정의하였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또한 문화만큼이나 정의가 다양하고 하나로 합의되지 못한 개념이다. 예를 들어, Hofstede, Hofstede, & Minkov(2010)는 개인주의를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느슨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직계 가족을 보살필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로 정의하였다. 반면에 집단주의는 사람들이 강하게 응집된 내집단에 통합되어, 내집단에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대가로 내집단으로부터 평생 동안 보호 받는 사회로 정의하였다. Triandis(1995)에 따르면, 개인주의는 한 개인을 집단과는 독립적인 존재로 바라보고, 자신의 선호, 필요, 권리에 기초해 행동하며, 다른 사람의 목표보다 자신의 목표를 더 우선시하는 경향성으로 정의된다. 집단주의의 경우 한 개인을 집단의 일부로 간주하고, 집단에 의해 주어지는 역할이나 의무에 따라 행동하며, 자신의 개인적 목표보다 집단의 목표를 우선순위에 두려는 경향성으로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에 대해서도 기존의 정의에서 공통적으로 추출되는 특징으로 정의하였다. 즉, 개인주의는 타인으로부터의 독립성과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정의하였고, 집단주의는 개인을 집단의 일부분으로 여기고 ‘우리’라는 내집단에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향으로 정의하였다.

문화의 변동

문화심리학자들은 지난 수십 년간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라고 하는 문화적 차원에 기반하여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했다. 이때 문화심리학자들이 주로 사용한 방법은 개인주의적 문화를 가진 국가와 집단주의적 문화를 가진 국가를 한 시점에 비교하는 것이었다. 그런 이유로 개인주의적 문화권으로 분류되는 북미, 유럽 국가들과 집단주의적 문화권으로 분류되는 동아시아 국가들을 비교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한 사회나 국가의 문화적 특성은 영구적이거나 고정불변하지 않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Kashima, Bain, & Perfors, 2019; Varnum & Grossmann, 2017). 다시 말해, 문화는 국가 간에 차이를 보이기도 하지만, 한 국가 안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해가기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이 미국보다 현재에도 여전히 집단주의적인 특성을 보일 수는 있지만, 한국 내에서의 개인주의 수준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추적하면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한 국가 내에서 여러 문화적 차원들, 특히 개인주의-집단주의와 관련된 가치관, 규범, 관행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자들은 한 국가가 보이는 개인주의의 변천사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와 연구 방법을 활용해 왔다. 먼저 오랫동안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온 설문 조사 자료를 사용한다. 40여 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1981년부터 가치관을 묻는 세계 가치관 조사(world values survey)나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1972년부터 매년 혹은 격년으로 의견, 태도, 가치관 등을 묻는 종합 사회 조사(general social survey) 등이 그러한 설문 조사 자료의 대표적인 예이다. 둘째, 전통적인 메타 분석을 변형한 시교차적 메타분석(cross-temporal meta-analysis)을 실시하기도 한다. 시교차적 메타 분석이란 특정한 심리적 특성을 연구한 자료들을 모은 후에, 각각의 개별 연구에서 특정한 심리적 특성을 측정하는 척도의 평균치와 그 연구가 출판된 연도 간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는 방

법이다(예: Twenge, 1997; Twenge & Campbell, 2001). 이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특정한 심리적 특성이 한 사회 내에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추적할 수 있다. 셋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변화로 개인주의의 확산 여부를 유추하기도 한다. 개인주의의 지표로 흔히 사용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는 이혼율,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 1인 가구 비율, 독거 노인 비율, 3세대 이상 가구 대비 1세대 가구 비 등(Grossmann & Varnum, 2015; Hamamura, 2012; Ogihara, 2018)이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산물(cultural products)을 사용해 개인주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기도 한다. 문화적 산물이란 광고, 대중가요, 책, 시각 예술, 사람과 장소에 붙여지는 이름 등 한 문화권에 속하는 구성원들이 만들어내고, 그 구성원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공유되는 유형(有形)의 문화적 실체를 일컫는다(Morling & Lamoreaux, 2008; Lamoreaux & Morling, 2012).

미국의 개인주의 변화 추이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자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 나라들이 점차 개인주의화되고 있는지를 검증하였다(Hamamura, 2018; Varnum & Grossmann, 2017 참조). 특히 Santos, Varnum, & Grossmann(2017)이 최근 전 세계 78개국을 대상으로 지난 51년간의 개인주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몇몇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개인주의적 가치관에 동의하고 개인주의적 관행을 따르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국가들에서 개인주의가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Santos 등(2017)의 연구 이전에 개별 국가들의 개인주의 변화를 살펴본 연구들도 다수 존재한다. 먼저 미국은 Hofstede(2001)의 개인주의 차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정도로 이미 개인주의적인 국가이지만, 여러 연구들에서 미국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개인주의화되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가치관의 측면에서 미국인들은 자녀들에게 자립의 가치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족보다는 친구가 더 중요하다는 문항들과 같은 개인주의적 가치들을 60여 년 전에 비해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amamura, 2012; Santos et al., 2017). 또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도 미국의 개인주의화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한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와 3세대가 한 지붕에 함께 사는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1인 가구 비율, 독거 노인 비율, 이혼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rossmann & Varnum, 2015; Hamamura, 2012; Santos et al., 2017).

몇몇 연구들은 문화적 산물을 통해서도 미국의 개인주의가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밝혔다. 이를테면 부모가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에서 부모가 얼마나 독특함과 개성을 선호하는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880년부터 2007년까지(Twenge, Abebe, & Campbell, 2010) 혹은 2012년까지(Grossmann & Varnum, 2015) 매해 태어난 미국 아기의 이름을 분석한 결과,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의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에게 흔한 이름보다는 독특한 이름을 지어주는 경향이 커졌다. 한편 2010년 Google에서는 1800년부터 여러 언어로 출판된 책들을 디지털화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였고, 이렇게 디지털화한 책들에 등장하는 단어의 빈도 수를 Google Books Ngram Viewer(<https://books.google.com/ngrams>)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도구를 활용하여 연구자들은 미국에서 출판된 책들에서 시간이 갈수록 1인칭 단수 대명사(I, me, my, mine, myself)의 사용은 증가한 반면, 1인칭 복수 대명사(we, us, our, ours, ourselves)의 사용은 감소하였으며(Twenge, Campbell, & Gentile, 2013), 개인주의적 단어나 구절들은 더 많이 등장하는 반면에, 집단주의적 단어나 구절들은 덜 등장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Greenfield, 2013; Grossmann & Varnum, 2015; Twenge, Campbell, & Gentile,

2012).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한 해에 빌보드 차트 상위 10위권 내에 오를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유행가에서도 최근에 나온 노래일수록 1인칭 단수 대명사는 더 많이 사용된 반면, 1인칭 복수 대명사는 덜 사용되는 경향을 보였다(DeWall, Pond, Campbell, & Twenge, 2011). 연구자들은 1인칭 단수 대명사의 사용이 점점 증가한 것을 개인주의의 확산으로, 1인칭 복수 대명사의 사용이 감소한 것을 집단주의의 쇠퇴로 해석하였다. 종합하면, 가치관, 인구통계학적 특성, 문화적 산물 등을 활용한 연구들을 통해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이 개인주의 사회로 더욱 이행하였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일본과 중국의 개인주의 변화 추이

최근에는 미국 외에 다른 국가들, 특히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하는 국가들이 얼마나 개인주의적이어졌는지를 알아보는 연구가 다수 출판되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가치관의 측면에서는 개인주의적인 가치관과 집단주의적인 가치관이 혼재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Hamamura, 2012). 그러나 1인 가구의 비율과 이혼율은 증가하고,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와 3세대 가구의 비율은 감소하는 등(Hamamura, 2012; Ogihara, 2018) 가족 구성의 측면에서는 개인주의적인 면모가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태어난 일본 아기의 이름을 분석한 결과, 일본의 부모들은 아기의 이름을 인기 있는 한자로 지어주되 이 이름을 흔하지 않게 발음하면서, 점차 아기에게 독특한 이름을 부여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Ogihara et al., 2015).

한편 중국의 경우에도 Google Books Ngram Viewer에서 중국어로 출판된 책들을 분석한 결과, 1인칭 단수 대명사와 1인칭 복수 대명사의 사용은 선형적인 형태를 띠지 않고 시기에 따라 등락을 반복했다(Hamamura & Xu, 2015; Yu et al., 2016). 같은 방법으로 개인주의적 단어와 구

절, 집단주의적 단어와 구절의 사용 빈도 수를 추적한 또 다른 연구를 보면, 중국어로 출판된 책에서 개인주의적 단어나 구절의 사용 빈도 수는 시간이 흐르면서 크게 증가했지만, “의무로 하다(obliged)”나 “주다(give)”와 같은 일부 집단주의적 단어나 구절의 사용 빈도 수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Zeng & Greenfield 2015). Santos 등(2017)의 연구에서도 중국은 개인주의적 가치관에 동의하는 비율이 지난 50여 년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변화의 양상이 다소 복합적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개인주의 변화 추이

한국의 개인주의 변화의 추이를 살펴본 연구도 몇몇 존재하며, 일본이나 중국처럼 결과가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먼저 한국에서 개인주의가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는 여러 연구들에서 발견된다. 예를 들어, 한규석과 신수진(1999)은 1998년 한 시점에 전국의 시도 지역에서 근무 중인 성인남녀에게 Triandis(1995)의 개인주의/집단주의 척도에 응답하게 하였다. 그 결과 수직/수평 차원을 통합하였을 때 개인주의자와 집단주의자의 비율이 대등하게 나왔으며, 저자들은 이를 한국 사회가 수직적이고 집단주의적인 사회에서 점차 개인주의적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나은영과 차유리(2010)는 1979년, 1998년, 2010년에 걸쳐 진행된 조사를 바탕으로 30여 년간 한국인의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추적하였다(1979년과 1998년의 결과를 비교한 연구는 나은영, 차재호, 1999 참조). 그 결과 1979년부터 2010년까지 자신과 가족을 중심으로 한 한국인의 개인주의 가치관은 다른 가치관들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최상진 등(2001)은 대중가요의 가사라는 문화적 산물을 해방 이후부터 1996년까지 1인칭 대명사의 사용 빈도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나’와 ‘나의’에 해당하는 1인칭 단수 대명사

의 사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는 것을 밝혔다.

반면에 한국에서 개인주의가 현대에 올수록 유의미하게 확산되지 않았다거나 여전히 개인주의적 가치관에 비해 집단주의적 가치관이 우세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들도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Santos 등(2017)은 여러 나라에서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50여 년간 증가해 왔는지를 분석하였는데, 그 중 한국은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유의한 증가를 보이지 않은 9개 국가 중 하나였다. 박혜경과 김상아(2018)는 1997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에서 수행된 총 41개 연구(참가자 수 총 12,925명)를 메타분석하였다. 그 결과 20년간 한국에서는 개인주의보다 집단주의적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자료 수집 시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았다(물론 분석에 포함된 연구의 대상이 청소년부터 대학생, 성인까지 이질적이어서 후자의 시교차적 메타분석을 해석할 때에는 주의를 요한다). 이인영과 박혜경(2020)은 1980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에서 발표되고 음악 방송 프로그램에서 1위를 수상한 대중가요의 가사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10년에 가까울수록 저각성 정서에 비해 고각성 정서가 더 빈번히 표현되어 개인주의적 성향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행위자가 타인이나 상황에 영향을 미치려는 경향은 타인이나 상황에 자신을 맞추려는 경향에 비해 증가하지 않아 개인주의적 경향이 증가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요컨대 한국에서 개인주의 성향의 변화를 관찰한 연구들이 이미 여럿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에서 도출된 결론은 서로 일관적이지 못하다. 어떤 연구들에서는 한국이 점진적으로 개인주의화되어 간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 반면(나은영, 차유리, 2010; 나은영, 차재호, 1999; 한규석, 신수진, 1999; 최상진 등, 2001), 다른 연구들에서는 한국이 여전히 집단주의적이거나, 최소한 시간이 흐를수록 개인주의적 성향이 더욱 널리 퍼지지 않는다는 결과를 내놓았

다(박혜경, 김상아, 2018; 이인영, 박혜경, 2020; Santos et al., 2017). 따라서 한국 사회가 점차 개인주의화되었는가에 관한 질문은 여전히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실증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는 주제라 할 수 있다.

연구 개요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가 점차 개인주의적인 사회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한국의 개인주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 연구들은 몇몇 연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연구에 참여한 참가자들의 응답에 기초한 자기보고식 설문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문화심리학이 태동할 때부터 문화심리학자들은 문화가 사람과 사회문화적 환경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며, 문화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회문화적 환경 모두를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Adams & Markus, 2004; Shweder, 1991). 즉, 문화는 사람들의 '머릿속'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머리 밖'인 사회문화적 환경에도 존재한다는 것이다(Morling & Lamoreaux, 2008). 따라서 한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려 할 때에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가치관, 규범 등을 묻는 자기보고식 설문과 함께 개인 외부에 존재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이나 문화적 산물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기보고식 설문은 사회적 바람직성이나 준거 집단 효과와 같은 편향에 취약하다(Lamoreaux & Morling, 2012). 물론 인구통계학적 특성이나 문화적 산물에도 그 자체로 편향이 존재하지만, 자기보고식 설문에서 내재된 편향으로부터는 비교적 자유롭다. 이처럼 자기보고식 설문에는 편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에만 의존하여 한국의 개인주의 변천사에 관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문화의 또 다른 단면인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한국의 개인주의의 변화 과정을 이해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설문이 아닌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문화적 산물에서 나타나는 개인주의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에서는 이혼율,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 1인 가구 비율, 독거 노인 비율, 3세대 이상 가구 대비 1세대 가구 비율을 사용하였다. 문화적 산물 중에서는 대중가요 가사에서 등장하는 1인칭 단수 대명사와 1인칭 복수 대명사의 비율, 그리고 부모가 아기에 지어주는 이름의 독특성을 사용하였다. 지표들을 선정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상기한 10개 지표를 선정한 첫 번째 이유는 개인주의를 통시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만큼의 자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경우 대체로 1970년부터, 대중가요 가사는 1981년부터, 아기 이름은 1940년부터 자료가 있기 때문에 개인주의의 변화 양상을 가늠할 만큼의 충분한 시간이라고 판단했다. 각 지표의 수집 횟수와 연도는 표 1에 제시하였다.

10개 지표를 선정한 두 번째 이유는 각각의 지표들이 개인주의적 경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먼저 이혼은 궁극적으로 가족 간의 관계나 가족에 대한 의무보다 개인의 권리나 행복을 더욱 우선시하는 결정이다. 집단주의 문화권에 비해 가족 간의 관계가 느슨한 개인주의 문화권에서 이혼율이 더 높은 경향이 있다(Triandis, 1995). 실제로 이혼율은 Hofstede(2001)가 개발한 국가별 개인주의 지표나 Triandis가 평정한 국가의 개인주의 지표와 정적인 상관 관계를 보였다(Diener, Diener, & Diener, 1995; Hamamura, 2012; Lester, 1995). 한국에서도 이혼은 개인주의적 가치관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오지혜(2015)는 여성가족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기혼 여성의 이혼 태도를 예측하는 주요 변수를 찾아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연령, 학력, 경제활동여부 등의 인구통계학적 요인이나 가구소득 등의 경제적 요인을 모두 통제하고도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기혼 여성이 이혼에 대해 가지는 태도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에서도

표 1. 자료 수집 횟수와 수집 연도

	N	자료 수집 연도
인구통계학적 지표		
1. 조이혼율	51	1970-2020
2. 유배우 이혼율	27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2020
3. 평균 가구원 수	1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2020
4. 1인 가구 비율	14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2020
5. 독거 노인 비율	12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2020
6. 1세대-3세대 가구 비	1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2020
대중가요 가사		
7. 1인칭 단수 대명사 비율	34	1981-2001, 2008-2020
8. 1인칭 복수 대명사 비율	34	1981-2001, 2008-2020
아기 이름의 독특성		
9. 남아 이름의 독특성 비율	81	1940-2020
10. 여아 이름의 독특성 비율	81	1940-2020

주. N값은 자료가 수집된 횟수를 의미한다.

이혼을 결심하는 데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주요한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 1인 가구 비율, 독거 노인 비율, 3세대 이상 가구 대비 1세대 가구 비 또한 개인주의적 경향을 나타내며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지표들이다. 대가족처럼 한 집에 거주하는 구성원의 수가 많아질수록 서로 간에 지켜야 할 규율과 깊어져야 할 책임들이 늘어나게 되는 반면, 가족 구성원의 수가 적어질수록 그러한 규율이나 책임, 의무 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진다(Triandis, 1989). 실제로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Hofstede(2001)의 개인주의 지표와 부적 상관 관계를 보였다(Hamamura, 2012), 1인 가구 비율, 독거 노인 비율, 3세대 이상 가구 대비 1세대 가구 비는 미국선거조사(American National Election Studies)에서 미국민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 개인주의 가치관 척도와 정적 상관 관계를 보였다(Vandello & Cohen, 1999).

1인칭 단수 대명사와 1인칭 복수 대명사를 사

용하는 것 또한 개인주의적 성향과 집단주의적 성향을 나타내는 지표들이다. 일례로 서구 문화권의 참가자들은 1인칭 복수 대명사(we, ours 등)보다 1인칭 단수 대명사(I, mine 등)에 접화되었을 때 더 개인주의적인 자기를 표상하는 경향을 보였다(Gardner, Gabriel, & Lee, 1999). Oyserman, Sorensen, Reber, Chen(2009)은 한국인들에게 한국어로 된 1인칭 단수 대명사와 1인칭 복수 대명사를 접화하였다. 그 결과, 1인칭 복수 대명사에 접화된 참가자들에 비해 1인칭 단수 대명사에 접화된 참가자들이 인지 과제에서 더욱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한국인들에게서도 1인칭 단수 대명사와 1인칭 복수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이 각각 개인주의적 성향과 집단주의적인 성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게다가 문장 안에 “나”를 주어로 사용하는 것은 행위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는데, 이처럼 1인칭 주어를 생략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경향은 Hofstede의 국가별

개인주의 점수와 정적인 상관 관계를 보였다 (Kashima & Kashima, 1998). 물론 한국어는 영어에 비해 문법적으로 주어 생략하는 것이 자유로운 언어이지만(박청희, 2012), 그렇기 때문에 주어인 “나”를 생략하지 않고 구태어 사용하는 비율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강조하는 자기초점적 경향 혹은 개인주의적 경향이 증대되었음을 방증하는 것일 수 있다.

아기의 이름 또한 문화의 변동을 파악하기에 이상적인 자료이다. 아기의 이름에는 이름을 지어주는 부모의 가치관이 깊이 스며들 수밖에 없으며, 부모의 가치관은 그 당시 문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Lieberson & Bell, 1992). 특히 부모가 당대에 인기 있는 이름과 흔하지 않은 이름 중 무엇을 선택하는가는 독특함을 추구하는 개인주의적 가치관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실제로 Varnum과 Kitayama(2011)는 미국과 캐나다 안에서도 더욱 개인주의적인 주(state)에 사는 부모들이 덜 개인주의적인 주(state)에 사는 부모들보다 아이들에게 독특한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이유로 아기 이름의 독특성은 선행 연구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문화의 변동을 이해하는 지표로 많이 활용되어 왔다 (Grossmann & Varnum, 2015; Ogihara et al., 2015; Twenge et al., 2010).

만약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지표들이 개인주의라는 개념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면, 각 지표들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먼저 이혼율, 1인 가구 비율, 독거 노인 비율, 3세대 이상 가구 대비 1세대 가구 비, 대중가요 가사 속 1인칭 단수 대명사 사용 비율, 아기 이름의 독특성 비율은 서로 유의한 정적 상관 관계를 보여야 한다. 반면에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 대중가요 가사 속 1인칭 복수 대명사 사용 비율은 다른 지표들과 유의한 부적 상관 관계를 나타내야 한다. 더불어 만약 한국이 개인주의적 사회로 이행하고 있다면, 각각의 개인주의 지표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다음과 같이 변화해야 한다.

먼저 이혼율, 1인 가구 비율, 독거 노인 비율, 3세대 이상 가구 대비 1세대 가구 비, 대중가요 가사 속 1인칭 단수 대명사 사용 비율, 아기 이름의 독특성 비율은 현대로 올수록 더 증가해야 한다. 반면에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 대중가요 가사 속 1인칭 복수 대명사 사용 비율은 현대로 올수록 더 감소해야 할 것이다.

방 법

측정도구

인구통계학적 지표

개인주의의 변화를 가늠하는 지표들 중 인구통계학적 지표들은 대부분 한국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참조하였다. 인구통계학적 지표들 중 이혼 동향을 나타내는 이혼율 지표(조이혼율, 유배우 이혼율)는 인구동향조사에서 추출하였다. 가족 구성의 동향을 나타내는 나머지 네 가지 지표(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 1인 가구 비율, 독거 노인 비율, 3세대 이상 가구 대비 1세대 가구 비)는 인구총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가족 구성 동향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통계청은 1970년부터 2010년까지는 5년마다 한국의 전체 가구를 방문하여 전수 조사하였다. 2015년부터는 등록센서스 기법을 활용하여 가족 구성 등의 일반적인 특성들은 모든 가구를 방문 조사하지 않고 축적된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매해 조사하고 있다. 따라서 인구총조사에서 추출한 지표들은 1970년부터 2010년까지는 5년 단위로 집계되다가 2015년부터는 1년 단위로 집계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조이혼율. 조이혼율은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를 의미한다. 조이혼율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총 이혼 건수를 당해 연도의 연앙인구(한 해의 중앙일인 7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총 인구

수로 나눈 후 1,000을 곱하여 산출한다. 조이혼율은 결혼하지 않은 인구까지 계산에 포함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의 인구 구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혼율을 부정확하게 산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조이혼율은 통계청에서 공식 이혼율 지표로 활용되고 있고, 계산 방법이 비교적 간단하여 전 세계적으로 폭넓게 사용되며, 1970년부터 2020년까지 매해마다 자료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 본 연구에서도 개인주의의 지표로 포함하였다.

유배우 이혼율. 조이혼율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유배우 이혼율도 개인주의의 지표로 활용하였다. 유배우 이혼율은 당해 연도에 신고된 총 이혼 건수를 당해 연도의 유배우 연앙인구(중앙일 7월 1일 기준 혼인 상태에 있는 인구)로 나눈 값에 1,000을 곱하여 구한다. 즉, 유배우 이혼율은 혼인 상태에 있는 유배우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를 의미한다. 유배우 이혼율은 혼인 상태에 있어 이혼이 가능한 인구 중에서 이혼 건수를 산출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더 정확한 이혼율 지표라 할 수 있다. 통계청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에 한해서만 매해 유배우 이혼율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고, 그 이전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최대한 많은 표본을 확보하기 위해, 박경애(2000)가 혼인 및 이혼 통계와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1970년부터 1995년까지 매 5년마다 산출한 유배우 이혼율도 사용하였다.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당해 연도의 총 일반 가구원 수를 총 일반 가구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가족 구성 동향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써 1970년부터 2010년까지는 5년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는 매해 산출된 수치를 사용하였다.

1인 가구 비율. 1인 가구 비율은 당해 연도

의 1인 가구 수에서 총 가구 수를 나눈 후 100을 곱하여 계산한다. 1인 가구 비율 또한 가족 구성 동향 지표이기 때문에, 1975년부터 2010년까지는 5년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는 매해 집계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1970년도 수치는 통계청 자료에서 누락되어 사용할 수 없었다.

독거 노인 비율. 독거 노인 비율은 당해 연도 만 65세 이상 인구 중 혼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다. 만 65세 이상이 가구주인 1인 가구 수를 만 65세 이상 인구 수로 나눈 후 100을 곱하여 계산한 값을 사용하였다. 독거 노인 비율은 1985년부터 공식 통계로 작성되기 시작하여 다른 가족 구성 동향 지표와 마찬가지로 2010년까지는 매 5년마다, 2015년부터는 매해 집계되었다.

3세대 이상 가구 대비 1세대 가구 비. 당해 연도 1세대로만 이루어진 가구 수를 3세대 이상으로 이루어진 가구 수로 나누어 산출한 값을 사용하였다. 1970년부터 2010년까지는 5년에 한번, 2015년부터는 매해 집계된 수치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대중가요 가사

시간에 따라 개인주의적 단어의 사용은 증가하고 집단주의적 단어의 사용은 감소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의 대중가요 중에서 매해마다 가장 인기가 있었던 노래의 가사를 취합하였다. 미국의 대중가요를 연구하였던 DeWall 등(2011)은 빌보드 연말 결산 순위를 기준으로 매해마다 가장 인기 있었던 노래 10곡을 선정하여 가사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한국에는 빌보드 연말 결산 순위와 유사한 순위 집계 방식이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국영방송인 KBS의 음악 방송에서 한 해당 1위를 가장 많이 수상한 곡 순서대로 10곡의 유행가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공중파 3사 중에서 KBS의 음악 방송을 선택한 이유는 KBS의 음악 방송이 다른 방송사의 음악

방송에 비해 가장 역사가 오래 되어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노래 가사의 변화를 파악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KBS는 1981년 2월부터 1998년 2월까지의 '가요톱텐'을, 1998년 6월부터 현재까지는 '뮤직뱅크'라는 대중 음악 순위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다. 여러 이유로 결방하거나 순위제를 폐지한 2001년 8월부터 2007년까지를 제외하면 거의 매주 1위를 발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981년부터 2020년까지 KBS 가요톱텐과 뮤직뱅크에서 최소 2회 이상 1위를 수상한 곡을 유행가로 보았고, 가장 1위를 많이 한 노래 순으로 한 해당 10곡을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예외가 되는 해도 있었다. 예를 들어, 1위를 한 횟수가 같은 노래가 많아 10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모든 동점 횟수의 노래들을 포함시켰다. 또한 2회 이상 1위를 한 곡을 유행가로 보았기 때문에 어떤 해에 2회 이상 1위를 한 곡이 10곡 미만이라면 10곡을 꼭 채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어떤 노래가 해를 넘겨 여러 번 수상하는 경우에는 그 노래가 처음 1위를 한 연도에 노래를 포함시켰다. 모든 노래는 분석 전에 띄어쓰기를 포함한 맞춤법을 모두 확인하였다.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1981년부터 2020년까지 총 372곡(한 해 평균 10.94곡, 표준편차 2.01, 범위 7-16)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노래 가사의 단어 수는 총 72,285개(한 해 평균 194.31 단어, 표준편차 96.43, 범위 46-483)였다.

1인칭 단수 대명사 비율. 대중가요 가사에서 1인칭 단수 대명사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기 위해, 분석에 포함된 372곡 각각에서 사용된 1인칭 단수 대명사의 개수와 각 노래의 총 단어 수를 셸다. DeWall 등(2011)이 사용한 계산 방법을 차용하여, 각 노래의 1인칭 단수 대명사의 개수를 총 단어 수로 나누고 100을 곱한 후에, 같은 연도에 발매된 노래들의 비율을 평균내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발매된 지코의 <아무

노래>에는 1인칭 단수 대명사가 18개 포함되었고, 이 노래의 총 단어 수는 351개였다. 지코의 노래에 사용된 1인칭 단수 대명사의 비율은 5.13%([18/351]*100%)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20년에 발매된 다른 6개 곡의 1인칭 단수 대명사 비율을 계산하였고, 총 7개 곡의 1인칭 대명사 비율을 평균 내었을 때 2020년 유행가에서 사용된 1인칭 단수 대명사의 비율은 6.14%였다. 계산 시 한국어('나', '난', '나의', '내', '나를', '날', '저', '제', '전', '절')와 영어('I', 'my', 'me', 'myself', 'mine') 1인칭 단수 대명사를 모두 포함하였다.

1인칭 복수 대명사 비율. 1인칭 단수 대명사 비율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였다. 총 372곡 각각에서 1인칭 복수 대명사의 개수를 세고 이를 각 노래의 총 단어 수로 나눈 후에 같은 연도에 발매된 노래들의 비율을 평균내었다. 1인칭 복수 대명사 또한 한국어('우리-')와 영어('we', 'our', 'us', 'ourselves', 'ours')가 모두 포함되었다.

아기 이름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stfamily.scourt.go.kr>)에서는 2008년부터 매해 출생신고된 남아와 여아 각각의 총 명수와 상위 20위까지의 이름 빈도를 공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저자가 대법원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여 대법원 홈페이지에는 공개되지 않은 1940년부터 2007년의 출생신고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에는 1940년부터 2020년까지 출생신고된 총 53,686,979명의 아기 이름 자료를 분석하였다.

한국의 부모들이 점차 아이들에게 독특한 이름을 지어주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Grossmann과 Varnum(2015)을 참고하여 매해 남아와 여아 각각의 상위 20위까지의 이름 빈도를 그해 태어난 남아와 여아 총 명수로 나누고, 100%에서 이 비율을 제하였다. 일례로 2020년에 태어나 출생신고된 남아는 총 147,000명이

었고, 이 중 상위 20위까지의 이름을 가진 남아의 수는 총 31,112명이었다. 2020년에 태어나 인기 있는 이름을 가진 남아의 비율은 21.16% ($[31,112/147,000]*100\%$)였고, 2020년 남아 이름의 독특성 비율은 100%에서 이 비율을 뺀 78.84% ($100\%-21.16\%$)로 계산되었다. 일부 선행 연구에서는 1위, 상위 10위, 25위, 50위의 결과를 각각 제시하였으나(Twenge et al., 2010), 본 연구에서는 순위를 다르게 하여 분석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산출되었기 때문에 상위 20위로 계산한 결과만 제시하였다.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개인주의 지표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 분석을 하였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개인주의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s; OLS)을 사용한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최소자승법을 사용한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에서는 연도 변인과 제공된 연도 변인을 예측 변인으로, 개인주의 지표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연도와 개인주의 지표들 간의 선형적 관계와 곡선적(quadratic) 관계를 살펴보았다. 예측 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을 줄이기 위해 Aiken과 West(1991)의 지침에 따라 각각의 연도에서 전체 평균 연도를 뺀으로써(grand-mean centering) 중심화된(centered) 연도 변인을 산출하였다. 더불어 연도와 개인주의 지표들 간의 곡선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중심화된 연도를 제공한 제공된 중심화 연도 변인을 산출하였다. 그 후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 모델의 1단계에서는 중심화된 연도 변인을 포함시키고, 2단계에서는 제공된 중심화 연도 변인을 예측변인으로 포함시킴으로써 각각의 변인이 개인주의 지표를 얼마나 예측하는지 살펴보았다.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7.0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결 과

개인주의 지표들 간 상관 관계

표 2에는 연구에서 사용된 개인주의 지표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개인주의 지표들 간의 상관관계가 제시되어 있다. 개인주의 지표들은 인구통계학적 특성, 대중가요 가사, 아기 이름의 독특성으로 분류하였다. 앞서 서술하였듯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지표들이 개인주의적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지표라면,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와 대중가요 가사 속 1인칭 복수 대명사를 제외한 지표들은 서로 유의한 정적 상관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와 대중가요 가사 속 1인칭 복수 대명사는 다른 지표들과 유의한 부적 상관 관계를 보여야 한다.

실제 개인주의 지표들 간의 상관 관계를 보면, 인구통계학적 지표들은 대체로 서로 일관된 방향으로 관련성이 유의하였다.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조이혼율, 유배우 이혼율, 1인 가구 비율, 독거 노인 비율, 1세대-3세대 가구 비와 유의한 부적 상관 관계를 보였다.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를 제외한 다른 인구통계학적 지표들은 서로 유의한 정적 상관 관계를 보였다.

대중가요 가사에서 나타난 1인칭 단수 대명사의 사용 비율은 인구통계학적 지표들과 예측된 방향으로 상관 관계가 나타났으나, 조이혼율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1인칭 단수 대명사의 사용 비율은 1인칭 복수 대명사의 사용 비율과는 부적 상관 관계를 보였으나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1인칭 복수 대명사 사용 비율의 경우도 다른 지표들과 예측된 방향으로 상관 관계가 나타났으나, 어느 지표들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아이에게 독특한 이름을 지어주는 비율의 경우, 예상과 다르게 남녀 아기 이름 모두 다른 개인주의 지표들과 상반된 방향으로 관련이 있었다. 즉, 독특한 아기 이름의 비율은

표 2. 개인주의 지표들의 기술통계치 및 지표들 간 상관 관계

	1	2	3	4	5	6	7	8	9	10
인구통계학적 지표										
1. 조이혼율($n=51$)	-	.99***	-.92***	.81***	.87***	.77***	.66***	-.09	-.73***	-.58***
2. 유배우 이혼율($n=27$)		-	-.91***	.79***	.85***	.76***	.42†	-.39	-.47*	-.43*
3. 평균 가구원 수($n=15$)			-	-.95***	-.97***	-.90***	-.44	.40	.92***	.66***
4. 1인 가구 비율($n=14$)				-	.93***	.98***	.34	-.25	-.99***	-.86***
5. 독거 노인 비율($n=12$)					-	.86***	.46	-.40	-.87***	-.89***
6. 1세대-3세대 가구 비($n=15$)						-	.31	-.15	-.98***	-.82***
대중가요 가사($n=34$)										
7. 1인칭 단수 대명사 비율							-	-.29†	-.48**	-.63***
8. 1인칭 복수 대명사 비율								-	.01	.12
아이 이름의 독특성($n=81$)										
9. 남아 이름의 독특성 비율									-	-.17
10. 여아 이름의 독특성 비율										-
<i>M (SD)</i>	1.58 (0.89)	4.41 (1.51)	3.27 (0.99)	19.42 (10.28)	16.50 (4.54)	2.29 (1.61)	7.42 (2.14)	0.76 (0.75)	91.60 (4.83)	80.62 (2.52)

주. n값은 자료가 수집된 행수를 의미한다. 쌍별제거법(pairwise deletion)으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조이혼율, 유배우 이혼율, 1인 가구 비율, 독거 노인 비율, 1세대-3세대 가구 비, 1인칭 단수 대명사와 유의한 부적 상관 관계를 보였으나,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 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논의에서 더 상세하게 다루고자 한다.

개인주의 변화 추이

그림 1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각의 개인주의 지표들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보여준다. 시간에 따른 개인주의의 변화 추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인구통계학적 지표에서 조이혼율과 유배우 이혼율은 모두 연도와 유의한 정

적인 선형적 관계와 부적인 곡선적 관계를 보였다. 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이혼율이 점차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에 그 증가세가 서서히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조이혼율과 유배우 이혼율이 최고점에 이르렀다가 감소하는 정확한 시점을 추정하기 위해, 이차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을 미분 방정식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그 결과 조이혼율은 2020.5년, 유배우 이혼율은 2006.39년에서 최고점에 달하다가 그 이후 증가세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연도와 유의한 부적인 선형적 관계가 있었던 데 반해, 정적인 곡선적 관계를 보였다. 이는 이혼율 지표들과는 반대로 시간이 흐를수록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가 점차 감소하다가 그 감소세가 주춤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곡선 그래프에 기반하여 가

최혜원 / 한국은 개인주의적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가? 가족 구성, 대중가요 가사, 아기 이름 속 개인주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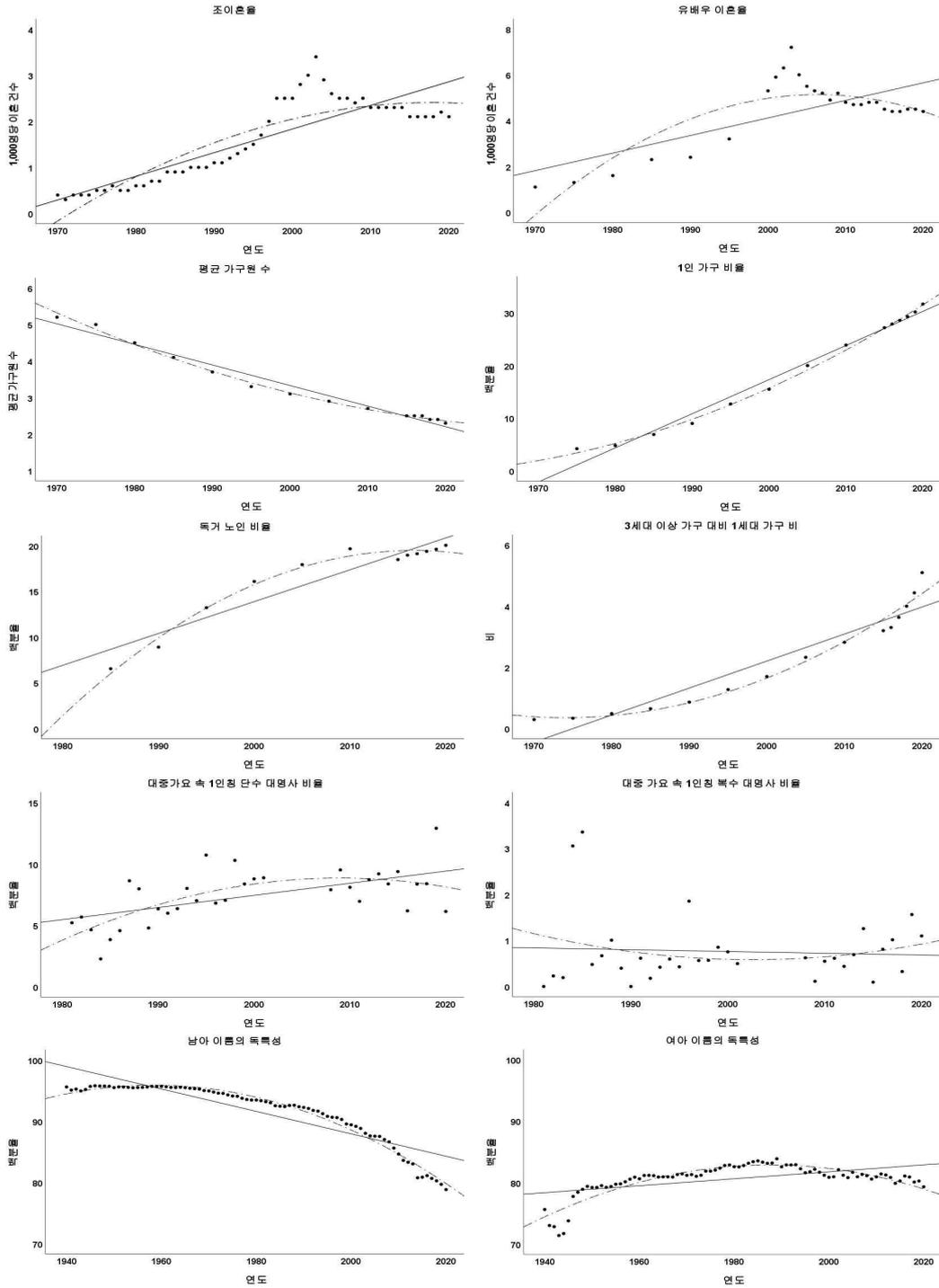


그림 1.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개인주의 지표들의 변화. 원점은 관측값, 실선은 선형 회귀선, 점선은 곡선형 회귀선을 보여준다.

표 3.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

지표	변인	1단계			2단계		
		<i>b</i>	<i>SE</i>	β	<i>b</i>	<i>SE</i>	β
인구통계학적 지표							
1. 조이혼율(<i>n</i> =51)	연도	.051	.004	.861***	.051	.004	.861***
	연도 ²				-.001	.000	-.247***
	R ²			.741			.802
	ΔR^2						.061***
2. 유배우 이혼율(<i>n</i> =27)	연도	.077	.016	.684***	.020	.017	.176
	연도 ²				-.004	.001	-.716***
	R ²			.468			.723
	ΔR^2						.255***
3. 평균 가구원 수(<i>n</i> =15)	연도	-.056	.003	-.986***	-.051	.001	-.890***
	연도 ²				.001	.000	.181***
	R ²			.973			.996
	ΔR^2						.023***
4. 1인 가구 비율(<i>n</i> =14)	연도	.649	.024	.992***	.701	.012	1.07***
	연도 ²				.007	.001	.140***
	R ²			.984			.997
	ΔR^2						.013***
5. 독거 노인 비율(<i>n</i> =12)	연도	.348	.040	.940***	.246	.022	.664***
	연도 ²				-.013	.002	-.419***
	R ²			.884			.982
	ΔR^2						.099***
6. 1세대-3세대 가구 비(<i>n</i> =15)	연도	.088	.008	.952***	.103	.005	1.12***
	연도 ²				.002	.000	.307***
	R ²			.906			.974
	ΔR^2						.068***
대중가요 가사(<i>n</i> =34)							
7. 1인칭 단수 대명사 비율	연도	.099	.025	.579***	.111	.023	.650***
	연도 ²				-.006	.002	-.343***
	R ²			.335			.448
	ΔR^2						.113*
8. 1인칭 복수 대명사 비율	연도	-.004	.010	-.065	-.006	.011	-.103
	연도 ²				.001	.001	.182
	R ²			.004			.036
	ΔR^2						.032

표 3.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

(계속)

지표	변인	1단계			2단계		
		b	SE	β	b	SE	β
아기 이름의 독특성(n=81)							
9. 남아 이름의 독특성 비율	연도	-.183	.010	-.892***	-.183	.003	-.892***
	연도 ²				-.004	.000	-.431***
	R ²			.796			.983
	ΔR^2						.186***
10. 여아 이름의 독특성 비율	연도	.057	.010	.529***	.057	.005	.529***
	연도 ²				-.004	.000	-.729***
	R ²			.280			.811
	ΔR^2						.531***

* $p < .05$, *** $p < .001$.

구당 평균 가구원 수가 최저점에 이르는 이론적 시점을 추정한 결과,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의 최저점은 2026.5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인 가구 비율과 1세대-3세대 이상 가구 비는 모두 연도와 유의한 정적 선형적 관계와 곡선적 관계를 보였다. 이는 1인 가구 비율과 1세대-3세대 이상 가구 비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띠는 것을 뜻한다.

독거 노인 비율도 이혼율처럼 연도와 유의한 정적 선형 관계와 부적 곡선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시간이 갈수록 독거 노인 비율이 증가하는 속도가 비교적 완만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곡선 그래프에 기초하였을 때 독거 노인의 비율이 최고점에 이른 시점은 2016.96년으로, 2016년까지는 독거 노인의 비율이 증가하다가 이후에는 그 증가세가 둔화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대중가요의 가사에서 1인칭 단수 대명사의 경우에도 연도와 정적 선형적 관계와 부적 곡선적 관계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조금 더 최근에 발매된 가요일수록 자신을 드러내는 자기초점적 성향이 더 강해졌으나, 그러한 양상이 최근으로 올수록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곡선 그래프의 최고점은

2009.04년으로, 약 2009년 이전에는 대중가요 가사에 1인칭 단수 대명사가 점점 더 많이 등장하다가, 2009년 이후에는 그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1인칭 복수 대명사의 사용 비율에서는 연도와 선형적이거나 곡선적 관계가 모두 나타나지 않아,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의 양상을 관찰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아기 이름의 독특성의 경우, 대체로 시간이 흐를수록 독특성의 정도가 감소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남아의 이름은 연도와 유의한 부적 선형적 관계와 부적 곡선적 관계를 보였다. 이는 그 해 태어난 아이들 중 독특한 이름을 가진 남아의 비율은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현대로 올수록 더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여아의 이름은 연도와 유의한 정적 선형적 관계와 부적 곡선적 관계를 보였다. 여아 이름의 독특성이 최고점에 도달한 이론적 시점은 1987년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아 이름의 독특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하다가 1987년 이후로는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¹⁾

1) 추가적으로 일반화된 최소자승법(GLS; generalized least squares)을 바탕으로 한 시계열 회귀분석(time series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동일한 지표를 반복적으로 추

추가적으로 10개의 각기 다른 지표의 연도 범위를 일치시켜 동일한 위계적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10개 지표 모두가 존재하는 시점인 1985년부터 매 5년마다 2020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각 지표의 변화의 양상을 같은 시점에 놓고 비교하고자 하였다(대중가요 가사의 경우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자료가 부재하여 2005년 자료는 결측치로 두었다). 시계열을 일치시킨 위계적 다중 회귀 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시계열을 일치시킨 위계적 다중 회귀 분석의 결과는 대체로 원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위계적 다중 회귀 분석의 결과와 유사하였지만 1인칭 단수 대명사 비율과 여아 이름의 독특성에서는 상이한 양상이 관찰되었다. 원 위계적 다중 회귀 분석에서는 1인칭 단수 대명사 비율과 연도가 유의한 선형적 관계를 보였으나, 시계열을 일치시킨 다중 회귀 분석에서는 그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 위계적 다중 회귀 분석에서는 여아 이름의 독특성과 연도가 유의한 정적 선형적 관계를 보였으나, 시계열을 일치시킨 다중 회귀 분석에서는 역으로 유의한 부적 선형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두 분석 사이에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로는 1985년 이전의 변화

적하는 시계열 자료에서는 잔차항들끼리 상관 관계를 보여, 선형 회귀분석에서 가정하는 잔차의 독립성 가정을 충족하지 못할 때가 있다. 이러한 경우 일반화된 최소자승법을 적용하면 잔차의 자기상관(autocorrelation)을 감안한 회귀 모델을 추정할 수 있다.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과 마찬가지로 중심화된 연도 변인과 제공된 중심화 연도 변인을 예측 변인으로, 각각의 개인주의 지표를 종속변인에 포함시키되, 최소자승법이 아닌 일반화된 최소자승법으로 회귀 모델을 추정하였다. 시계열 회귀분석이므로 각 지표의 관측치가 동일한 간격을 가질 수 있도록 자료를 변형하였다. 분석을 위해 R의 nlme package(Pinheiro, Bates, DebRoy, & Sarkar, 2014)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유배우 이혼율에서 곡선형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b_2 = -.002$, $SE = .001$, $p = .131$, 다른 지표에서는 최소자승법을 사용한 위계적 회귀분석과 거의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양상이 후자의 분석에서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전자의 분석에서는 대중가요와 아기 이름 자료가 매해 분석에 포함되었지만, 후자의 분석에서는 자료가 5년에 한 번씩만 분석에 포함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이 점차 더 개인주의적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에서 개인주의를 나타내는 지표로 쓰였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혼율,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 1인 가구 비율, 독거 노인 비율, 3세대 이상 가구 대비 1세대 가구 비)과 문화적 산물(대중가요 가사, 아기 이름)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개인주의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예측된 방향으로 서로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즉, 이혼율, 1인 가구 비율, 독거 노인 비율, 3세대 이상 가구 대비 1세대 가구 비, 대중가요 속 1인칭 단수 대명사 비율은 서로 정적 상관 관계를 나타낸 반면에,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와 대중가요 속 1인칭 복수 대명사는 이 지표들과 부적 상관 관계를 보였다. 예상을 벗어난 결과도 있었다. 아기 이름의 독특성은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와 1인칭 복수 대명사를 제외하고 다른 개인주의 지표들과 유의한 정적 상관 관계를 보여야 했다. 그러나 아기 이름의 독특성은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와 1인칭 복수 대명사를 제외한 지표들과 오히려 유의한 부적 상관 관계를 보였고,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 관계를 보였으며, 1인칭 복수 대명사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더 중요한 결과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개인주의 지표들의 변화 양상이다. 몇몇 지표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개인주의적 경향이 강해지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예를 들면, 시간이 갈수록 이혼율, 1인 가구 비율, 독거 노인 비율, 1세대-3

표 4. 시계열을 일치시킨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

지표	변인	1단계			2단계		
		<i>b</i>	<i>SE</i>	β	<i>b</i>	<i>SE</i>	β
인구통계학적 지표							
1. 조이혼율	연도	.038	.015	.722*	.038	.009	.722**
	연도 ²				-.003	.001	-.576*
	R ²			.521			.853
	ΔR^2						.332*
2. 유배우 이혼율	연도	.072	.030	.701†	.072	.020	.701*
	연도 ²				-.006	.002	-.561*
	R ²			.491			.806
	ΔR^2						.315*
3. 평균 가구원 수	연도	-.049	.003	-.987***	-.049	.002	-.987***
	연도 ²				.001	.000	.144**
	R ²			.973			.994
	ΔR^2						.021**
4. 1인 가구 비율	연도	.721	.023	.997***	.721	.014	.997***
	연도 ²				.005	.001	.063*
	R ²			.994			.998
	ΔR^2						.004*
5. 독거 노인 비율	연도	.389	.058	.938***	.389	.025	.938***
	연도 ²				-.013	.003	-.317**
	R ²			.881			.981
	ΔR^2						.101**
6. 1세대-3세대 가구 비	연도	.114	.014	.955***	.114	.010	.955***
	연도 ²				.003	.001	.235*
	R ²			.913			.968
	ΔR^2						.055*
대중가요 가사							
7. 1인칭 단수 대명사 비율	연도	.053	.075	.302	.059	.023	.332
	연도 ²				-.015	.005	-.799*
	R ²			.091			.729
	ΔR^2						.638*
8. 1인칭 복수 대명사 비율	연도	-.036	.036	-.409	-.038	.029	-.432
	연도 ²				.006	.003	.622
	R ²			.167			.553
	ΔR^2						.386

표 4. 시계열을 일치시킨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

(계속)

지표	변인	1단계			2단계		
		<i>b</i>	<i>SE</i>	β	<i>b</i>	<i>SE</i>	β
아기 이름의 독특성							
9. 남아 이름의 독특성 비율	연도	-.411	.041	-.972***	-.411	.016	-.972***
	연도 ²				-.009	.002	-.220**
	R ²			.945			.993
	ΔR^2						.048**
10. 여아 이름의 독특성 비율	연도	-.101	.016	-.935***	-.101	.017	-.935***
	연도 ²				.001	.002	.056***
	R ²			.875			.878
	ΔR^2						.003

주. †*p* < .10, **p* < .05, ***p* < .01, *** *p* < .001.

세대 이상 가구 비, 대중가요 속 1인칭 단수 대명사의 사용 빈도는 점점 증가하는 반면,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감소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에 부합하지 않는 지표들도 있었다. 대중가요 속 1인칭 복수 대명사는 시간의 흐름과 크게 관계가 없었고, 아기 이름의 독특성은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1인칭 복수 대명사를 제외한 다른 개인주의 지표들은 모두 연도와 유의한 곡선적 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개인주의 변화 양상이 비선형적이며 복잡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왜 어떤 지표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개인주의가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는 데 비해, 어떤 지표에서는 개인주의의 확산과 크게 관련이 없거나 오히려 집단주의적인 경향이 더 강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 첫 번째로 가능한 해석은 현재 한국 사회를 개인주의적 문화와 집단주의적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로 보는 것이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집단주의적인 국가였지만 압축적인 근대화 과정을 경험하면서, 집단주의를 공고히 뒷받침하던 가족주의와 유교적 가치관이 약화되었다. 이는 1979년과 비교했을 때, 1998년

과 2010년의 한국인들이 국가보다는 자신과 가족을 더 중요시 여기는 동시에, 충효 사상과 부모 봉양을 덜 중요시 여기는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나은영, 차유리, 2010; 나은영, 차재호, 1999). 집단주의의 구속력이 약화된 틈을 타 개인주의적 가치가 확산되기 시작했고, 이는 이혼율, 1인 가구 비율의 증가 등과 같은 삶의 모습들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개인주의적 가치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곧 오래도록 지속되어온 집단주의적 가치를 모두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중에도 집단주의에서 비롯된 여러 문화적 유산은 계속 지속될 수 있다. 실제로 Inglehart와 Baker(2000)는 세계가치관조사에 포함된 65개국이 근대화로 인해 거대한 문화적 변화를 겪었으나, 그와 동시에 각 나라에는 각기 다른 전통적 가치들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인 일본(Hamamura, 2012)이나 중국(Hamamura & Xu, 2015; Yu et al., 2016)에서 개인주의적인 모습과 집단주의적인 모습이 함께 나타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한국 사회에서 개인주의자와 집단주의자의 비율이 대등하게 나타난 한규석과 신수진(1999)의 결과도 같은 맥락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대로 올수록 전통적인 가치들이 모두 개인주의적 가치로 대체된다고 이해하기 보다는, 개인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집단주의적 가치들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공존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 사회를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가 공존하는 사회로 전제한다면 앞으로 더 중요한 질문은, 어떤 가치들이 개인주의적 가치에 의해 대체되지 않고 계속되는 반면, 어떤 가치들은 변화하고 있는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예측하는 일일 것이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개념에서 찾을 수 있을 지도 모른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들이 제안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개념을 하나로 뭉뚱그려 정의하였지만, 이들 개념 자체도 다양하고 독립적인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앞서 서술하였듯이 Hofstede 등(2010)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여,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느슨하게 규정되는 경향을 개인주의로, 내집단에 충성하는 대가로 내집단의 보호를 받는 경향을 집단주의로 정의하였다. 반면에 Triandis(1995)는 자기 표상에 주목하여, 자기 자신을 독립적이고 독특한 존재로 바라보는 경향을 개인주의로, 자기 자신을 집단의 일부로 인식하는 경향을 집단주의로 정의하였다. 두 연구자의 개인주의/집단주의 개념을 독립적으로 본다면, 본 연구에서 이혼율 증가, 1인 가구 증가, 3세대 가구 대비 1세대 가구 비 증가 등 전통적인 가족 제도에서 탈피하려는 경향은 Hofstede 등(2010)의 개념에서 보았을 때에는 개인주의로의 변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기 이름의 독특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결과를 미루어볼 때, Triandis가 정의한 개인주의로의 변화로는 아직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지표마다 상이한 결과가 나타난 것에 대해 두 번째로 가능한 해석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개인주의적 가치가 크게 확산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다. 먼저 부모가 아기의 이름을 지어줄

때 그 이름의 독특성이 현대로 올수록 더 감소하고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가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해석은 한국에서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50여 년간 증가하지 않았다는 Santos 등(2017)의 연구와 지난 20여 년간 한국에서 개인주의적 성향보다는 집단주의적 성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는 박혜경과 김상아(2018)의 메타분석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한국 사회에서 그동안 개인주의적 가치가 확산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린다면, 이혼율과 1인 가구 비율의 증가, 평균 가구원 수 감소 등 인구통계학적 지표들에서 나타난 결과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논문의 서두에서 10개 지표들이 개념적으로나 경험적으로 개인주의를 반영하는 지표임을 시사하는 여러 연구들을 소개하였으나, 그럼에도 각 지표들이 최소한 한국에서는 개인주의를 적절히 나타내는 지표가 아닐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예를 들어, 이혼율, 1인 가구 비율,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 등의 인구통계학적 지표들은 국민소득수준의 증대, 산업화와 도시화 전개, 여성경제활동인구의 증가, 신자유주의의 경쟁 체제 등 사회경제적 요인들에 의해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이고, 개인주의와는 크게 관련이 없을 수 있다.²⁾ 비슷한 맥

2) 사회경제적 요인을 통제하고도 인구통계학적 지표들에서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지표를 종속 변인으로 하고, 연도 변인과 제곱된 연도 변인을 예측 변인으로, 1인당 국내 총생산(GDP per capita;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PCAP.CD>), 여성경제활동인구 비율(<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L.TLF.CACT.FE.ZS>), 도시 인구 비율(<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P.URB.TOTL.IN.ZS>)을 통제 변인으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제 변인 자료는 모두 세계은행에서 추출하였다. 그 결과,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연도 $\beta = -0.47, p = .139$; 연도² $\beta = -0.29, p = .098$)와 3세대 이상 가구 대비 1세대 가구 비(연도 $\beta = -0.07, p = .919$; 연도² $\beta = 1.29, p = .015$)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통제했을 때 연도와 각 지표 간 선형적 관계의 유의성이 사라졌다. 그러나 이혼율(연도 $\beta = 3.85, p = .002$; 연도² $\beta = -2.11, p = .010$), 유배우 이혼율(연도 $\beta = 1.61, p = .087$; 연도² $\beta =$

락에서 Chang과 Song(2010)은 한국 사회의 변화를 ‘개인주의 없는 개인화’로 칭하면서, 한국의 개인화를 압축적인 근대화 속에서 ‘개인’으로 내몰리게 된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설명에 기초한다면, 한국의 인구통계학적 지표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개인주의로 인한 결과라기보다는, 산업화, 도시화, 경제성장, 신자유주의화 등의 근대화를 급속도로 빠른 시간 내에 경험하면서 발생한 파편화된 개인들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이 유효하다면, 한국 사회가 얼마나 개인주의적으로 변화해왔는지보다 더 먼저 그리고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의 ‘개인’과 ‘개인주의’가 무엇이나에 관한 것일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개인’은 누구이고, ‘개인주의’는 어떻게 이해되며, ‘개인주의’가 한국 사회에 과연 존재하는지, 만약 존재한다면 서구에서 발전해온 ‘개인주의’와 어떠한 점에서 유사하고 어떠한 점에서 다른가에 관해 논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의 개인주의가 지난 수십 년간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한국의 개인주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장 1940년부터 2020년까지 약 80년간 한국의 개인주의 변화를 추적한 연구는 본 연구가 처음이다. 또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미국, 중국,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 개인주의적 경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더 초점을 맞추었다. 중국이나 일본은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하는 국가들로서, 한국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정치, 경제, 사회, 역사적으로 한국은 두 국가와 많이 다르기도 하다.

-0.98, $p = .107$), 1인 가구 비율($\beta = 0.91$, $p = .001$; 연도² $\beta = 0.12$, $p = .127$), 독거 노인 비율(연도 $\beta = 0.94$, $p = .032$; 연도² $\beta = 0.10$, $p = .582$)은 사회경제적 요인을 통제하고도 연도와 각 지표 간 선형적 관계가 여전히 유의했다. 이 결과는 인구통계학적 지표 변화의 원인을 온전히 사회경제적 요인으로만 돌릴 수 없음을 시사한다.

이 때문에 중국과 일본의 결과를 그대로 한국 사회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장기간에 걸친 한국의 개인주의화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한국의 개인주의 변화 추이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 인구통계학적 자료와 문화적 산물을 활용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가치관을 묻는 자기보고식 응답에 기초한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응답에 기반한 기존 연구들을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문화적 산물 자료를 사용하여 보완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를 확장하였다. 또한 단일한 지표에만 의존하지 않고 서로 다른 10개 지표를 한 연구에서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개인주의로의 이행이 복합적이라는 점을 밝혔다. 특히 본 연구는 이름 통계를 최초로 사용한 연구이다. 이 이름 통계는 일제 말부터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아기들의 이름 자료로서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기들을 제외하고는 100% 표본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그 어떤 자료보다 대표성 있는 자료를 사용했다는 장점이 있다. 요컨대 본 연구는 개인주의를 반영하는 비자기보고식 자료들을 발굴하여 이를 한 연구에서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개인주의 변화를 전체적으로 조망하였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크고 작은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최소 40년(대중가요 가사)에서 최장 80년(이름 통계)에 걸친 변화를 추적하기는 하나, 이혼율이나 이름 통계를 제외하고는 측정치(data points)가 많지 않다.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 1인 가구 비율, 독거 노인 비율, 1세대-3세대 가구 비 통계는 2015년 등록센서스 기법으로 바뀌기 이전에는 5년에 한 번씩 집계됐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적은 측정치로 인해 안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고, 간헐적인 측정치로 인해 매해마다의 세세한 변동을 살펴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2015년 이후에는 이러한 인구통계학적인 특성들이 매해마다 집계되고 있

기 때문에, 향후에는 더 많고 촘촘하게 얻어진 측정치를 가지고 신뢰도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앞서 상세히 논의하였으나 결과가 완전히 일관적이지 않다. 인구통계학적 지표들이나 대중가요 가사 속 1인칭 단수 대명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주의가 심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집단주의를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1인칭 복수 대명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크게 변화하지 않았고, 아기 이름은 현재로 올수록 독특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이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을 제시하였지만 이는 잠정적인 설명에 그친다. 향후 연구를 통해 지표들 간엔 상이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보다 면밀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셋째, 역시 앞에서 상세히 논의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지표가 최적의 개인주의 지표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앞서 논의하지 않은 지표인 대중 가요의 경우 1인칭 단수 대명사와 복수 대명사의 사용 빈도를 활용하여 개인주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한국어의 경우 1인칭 단수 대명사를 탈락시키는 것이 영어에 비해 문법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그 변화의 정도를 정밀하게 추적하기 어려울 수 있다. 반면에 가사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은 가사에 등장하는 1인칭 대명사의 사용 빈도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가사의 내용을 개인주의적 경향의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살펴본다면 더욱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의 대중가요에 등장하는 1인칭 복수 대명사인 ‘우리가’ 집단주의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는 단어가 아닐 수 있다. 한국의 대중가요는 주로 사랑을 주제로 하는 노래들이 많다. 실제로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대중가요 가사를 의미 연결망 분석으로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 40여 년에 걸쳐 대중가요를 관통하는 핵심어로 사랑이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김용학, 2015). 대중

가요 가사 속에 등장하는 ‘우리가’ 집단이나 집단 구성원들보다는 자신과 사랑하는 연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더 많이 사용된다면, 적어도 한국에서는 시간에 따른 ‘우리’의 사용 빈도가 개인주의의 확산이나 집단주의의 쇠퇴와 직접 관련이 없을 수 있다.

넷째, 본 연구는 개인주의의 변화 양상을 다양한 지표들을 활용하여 확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때문에 한국이 지난 80여 년간 어떠한 이유로 지금과 같은 변화의 모습을 띠게 되었는지를 밝히지는 못했다. Grossmann과 Varnum (2015)은 미국에서, Santos 등(2017)은 78개국에서 개인주의가 확산되는 데 가장 기여한 변인이 사회경제적 발전이라는 점을 밝혔다. 향후에는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개인주의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동인이 무엇인지를 탐색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저자소개

최혜원은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며 행복, 문화, 사회생태학, 대인 판단 등을 연구하고 있다.

참고문헌

- 국민일보 (2016, 12, 9). 한국사회 개인주의 만연... 성공·富 ‘막가는 경쟁’.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56458>
- 김용학 (2015). 한국 대중가요의 의미 연결망. **대중서사연구**, 21(1), 145-171.
- 나은영, 차유리 (2010).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 추이: 1979년, 1998년, 및 2010년의 조사 결과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4), 63-93.
<https://doi.org/10.21193/kjspp.2010.24.4.004>

- 나은영, 차재호 (1999). 1970년대와 1990년대 간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와 세대차 증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37-60.
- 박경애 (2000). 한국의 이혼율 추이와 의미, 1970~1995. **한국인구학**, 23(1), 5-29.
- 박정희 (2012). 한국어와 영어의 생략 현상에 대한 통계적 접근-주어와 목적어의 생략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66, 171-192.
- 박혜경, 김상아 (2018). 한국인의 문화성향에 관한 메타분석: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를 중심으로. **지역과 세계**, 42(3), 5-37.
- 오지혜 (2015). 한국 기혼여성의 이혼태도에 관한 연구: 가정 내 요인과 가정 외 요인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7(1), 233-270.
- 이인영, 박혜경 (2020). 문화를 비추는 거울: 대중음악 선호에 반영된 한국인의 문화성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6(3), 221-257.
<https://doi.org/10.20406/kjcs.2020.8.26.3.221>
- 최상진, 조윤동, 박정열 (2001). 대중가요 가사 분석을 통한 한국인의 정서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0(1), 41-66.
- 한규석, 신수진 (1999). 한국인의 선호가치 변화-수직적 집단주의에서 수평적 개인주의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293-310.
-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Thousand Oaks, CA: Sage.
- Bruner, J. S. (1990). *Acts of meaning*.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hang, K. & Song, M. (2010). The stranded individualizer under compressed modernity: South Korean women in individualization without individualism.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61(3), 539-564.
<https://doi.org/10.1111/j.1468-4446.2010.01325.x>
- D'Andrade, R. G. (1984). Cultural meaning systems. In R. A. Shweder & R. LeVine (Eds.), *Culture theory: Essays on mind, self, and emotion* (pp. 88-119).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eWall, C. N., Pond, R. S., Jr., Campbell, W. K., & Twenge, J. M. (2011). Tuning in to psychological change: Linguistic markers of psychological traits and emotions over time in popular U.S. song lyrics. *Psychology of Aesthetics, Creativity, and the Arts*, 5(3), 200-207.
<https://doi.org/10.1037/a0023195>
- Diener, E., Diener, M., & Diener, C. (1995). Factors predicting the subjective well-being of n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5), 851-864.
<https://doi.org/10.1037/0022-3514.69.5.851>
- Gardner, W. L., Gabriel, S., & Lee, A. Y. (1999). "I" value freedom but "we" value relationships: Self-construal priming mirrors cultural differences in judgment. *Psychological Science*, 10(4), 321-326.
<https://doi.org/10.1111/1467-9280.00162>
- Greenfield, P. M. (2013). The changing psychology of culture from 1800 through 2000. *Psychological Science*, 24(9), 1722-1731.
<https://doi.org/10.1177/0956797613479387>
- Grossmann, I., & Varnum, M. E. W. (2015). Social structure, infectious diseases, disasters, secularism, and cultural change in America. *Psychological Science*, 26(3), 311-324.
<https://doi.org/10.1177/0956797614563765>
- Hamamura, T. (2012). Are cultures becoming individualistic? A cross-temporal comparison of individualism-collectivism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6(1), 3-24.
<https://doi.org/10.1177/1088868311411587>
- Hamamura, T. (2018). A cultural psychological analysis of cultural change.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1(1-2), 3-12.
<https://doi.org/10.1111/ajsp.12194>
- Hamamura, T., & Xu, Y. (2015). Changes in

- Chinese culture as examined through changes in personal pronoun usage.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0(7), 930-941.
<https://doi.org/10.1177/0022022115592968>
- Hofstede, G. (2001). *Culture's consequences: Comparing values, behavior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cross nations*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Hofstede, G., Hofstede, G. J., & Minkov, M. (2010).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revised and expanded)*. New York, NY: McGraw-Hill.
- Inglehart, R., & Baker, W. E. (2000). Modernization, cultural change, and the persistence of traditional valu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5(1), 19-51. <https://doi.org/10.2307/2657288>
- Kashima, Y., Bain, P. G., & Perfors, A. (2019). The psychology of cultural dynamics: What is it, what do we know, and what is yet to be know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70, 499-529.
<https://doi.org/10.1146/annurev-psych-010418-103112>
- Kashima, E. S., & Kashima, Y. (1998). Culture and language: The case of cultural dimensions and personal pronoun use.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9(3), 461-486.
<https://doi.org/10.1177/0022022198293005>
- Kroeber, A. L., & Kluckhohn, C. K. (1952). *Culture: A critical review of concepts and definitions*. New York: Random House.
- Lamoreaux, M., & Morling, B. (2012). Outside the head and outside individualism-collectivism: Further meta-analyses of cultural product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3(2), 299-327.
<https://doi.org/10.1177/0022022110385234>
- Lester, D. (1995). Individualism and divorce. *Psychological Reports*, 76(1), 258-258.
<https://doi.org/10.2466/pr0.1995.76.1.258>
- Lieberson, S., & Bell, E. O. (1992). Children's first names: An empirical study of social tast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8(3), 511-554.
<https://doi.org/10.1086/230048>
- Morling, B., & Lamoreaux, M. (2008). Measuring culture outside the head: A meta-analysis of individualism-collectivism in cultural produc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2(3), 199-221.
<https://doi.org/10.1177/1088868308318260>
- Ogihara, Y. (2018). The rise in individualism in Japan: temporal changes in family structure, 1947-2015. *Journal of Cross Cultural Psychology*, 49(8), 1219-1226.
<https://doi.org/10.1177/0022022118781504>
- Ogihara, Y., Fujita, H., Tominaga, H., Ishigaki, S., Kashimoto, T., Takahashi, A., Toyohara, K., & Uchida, Y. (2015). Are common names becoming less common? The rise in uniqueness and individualism in Japan. *Frontiers in Psychology*, 6, 1490.
<https://doi.org/10.3389/fpsyg.2015.01490>
- Oyserman, D., Sorensen, N., Reber, R., & Chen, S. X. (2009). Connecting and separating mind-sets: culture as situated cogn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7(2), 217-235.
<https://doi.org/10.1037/a0015850>
- Pinheiro, J., Bates, D., DebRoy, S., & Sarkar, D. (2021). nlme: linear and nonlinear mixed effects models. R package version 3.1-152.
<https://CRAN.R-project.org/package=nlme>
- Santos, H. C., Varnum, M. E. W., & Grossmann, I. (2017). Global increases in individualism. *Psychological Science*, 28(9), 1228-1239.
<https://doi.org/10.1177/0956797617700622>
- Shweder, R. A. (1991). *Thinking through cultures: Expeditions in cultural psycholog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Taras, V., Sarala, R., Muchinsky, P., Kemmelmeier,

- M., Singelis, T. M., Avsec, A., ... & Sinclair, H. C. (2014). Opposite ends of the same stick? Multi-method test of the dimensionality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5*(2), 213-245. <https://doi.org/10.1177/0022022113509132>
- Triandis, H. C. (1972). *The analysis of subjective culture*. New York: Wiley.
- Triandis, H. C.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ulder, CO: Westview Press.
- Triandis, H. C. (1989). The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ing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3), 506-520. <https://doi.org/10.1037/0033-295X.96.3.506>
- Twenge, J. M. (1997). Changes in masculine and feminine traits over time: A meta-analysis. *Sex Roles, 36*(5), 305-325. <https://doi.org/10.1007/BF02766650>
- Twenge, J. M., Abebe, E. M., & Campbell, W. K. (2010). Fitting in or standing out: Trends in American parents' choices for children's names, 1880-2007.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1*(1), 19-25. <https://doi.org/10.1177/1948550609349515>
- Twenge, J. M., & Campbell, W. K. (2001). Age and birth cohort differences in self-esteem: A cross-temporal meta-analysi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5*(4), 321-344. https://doi.org/10.1207/S15327957PSPR0504_3
- Twenge, J. M., Campbell, W. K., & Gentile, B. (2012). Increases in individualistic words and phrases in American books, 1960-2008. *PloS one, 7*(7), e40181.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040181>
- Twenge, J. M., Campbell, W. K., & Gentile, B. (2013). Changes in pronoun use in American books and the rise of individualism, 1960-2008.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4*(3), 406-415. <https://doi.org/10.1177/0022022112455100>
- Vandello, J. A., & Cohen, D. (1999). Pattern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cross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2), 279-292. <https://doi.org/10.1037/0022-3514.77.2.279>
- Varnum, M. E. W., & Grossmann, I. (2017). Cultural change: The how and the why.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12*(6), 956-972. <http://dx.doi.org/10.1177/1745691617699971>
- Varnum, M. E., & Kitayama, S. (2011). What's in a name? Popular names are less common on frontiers. *Psychological Science, 22*(2), 176-183. <https://doi.org/10.1177/0956797610395396>
- Yu, F., Peng, T., Peng, K., Tang, S., Chen, C. S., Qian, X., ... & Chai, F. (2016). Cultural value shifting in pronoun use.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7*(2), 310-316. <https://doi.org/10.1177/0022022115619230>
- Zeng, R., & Greenfield, P. M. (2015). Cultural evolution over the last 40 years in China: Using the Google Ngram Viewer to study implications of social and political change for cultural value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50*(1), 47-55. <https://doi.org/10.1002/ijop.12125>

1 차원고접수 : 2023. 01. 02.

수정원고접수 : 2023. 07. 03.

최종게재결정 : 2023. 07. 22.

Is South Korea Transforming into an Individualistic Society? Temporal Changes in Individualism in Family Structure, Song Lyrics, and Baby Names

Hyewon Choi

Department of Sociology, Kyung Hee University

South Korea has experienced enormous changes through colonization, the Korean War, the division of Korea, industrialization, democratization and so on over the past 80 years. The present study aimed to track how individualism in South Korea has changed. To this end, I use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divorce rate, average household size, percentage of people living alone, percentage of elderly people living alone, ratio of single-generation to multi-generation households) and cultural products (the usage of first-person pronouns in popular song lyrics, the uniqueness of baby names) that have been widely used as indices of individualism. The results showed that over time the divorce rate, the percentage of living alone, the percentage of elderly people living alone, and the ratio of single-generation to multi-generation households, and the usage of first-person singular pronoun in popular song lyrics have increased, whereas average household size has decreased. However, the uniqueness in baby names has rather decreased and the usage of first-person plural pronouns has remained stable, suggesting that the temporal changes in individualism in Korea are complex. The present study has implications for tracking long-term shifts in individualism in Korea using non-self-report measures.

Keywords: culture, cultural change, individualism, collectivism, cultural products